

## 근대5종 전남 서창완, 광주 전용태 제치고 금메달

### 개인전 국가대표들 열띤 경쟁 단체전선 광주 1위 · 전남 2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냈던 한국 근대5종 간파스타 서창완(전남도청)과 전용태(광주시청)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지며 위용을 과시했다.

단체전에서는 전용태와 김영석이 팀을 이룬 광주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서창완과 박상구가 호흡을 맞춘 전남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창완은 14일 해남우슬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근대5종 남자일반부 5종 개인전 결승에서 총 1561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창완은 스마 300점(13위), 수영 308점(5위), 펜싱라운드 243점(4위)을 기록, 전체 4위로 레이저런(육상+사격 복합)을 출발했다.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1위 이지훈(LH)보다 15초 늦게 출발한 서창완은 첫 번째 사격에서 2위로 치고 나갔고, 세 번째 사격에서 전용태를 제친 후 페이스를 유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서창완은 이번 대회 개인전 금메달로 아시안게임에서 노메달의 아쉬움을 말끔하게 털어냈다. 서창완과 전용태는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

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으나 개인전에서 전용태가 1위, 이지훈이 2위, 정진화가 4위, 서창완이 8위를 기록했다. 상위 3명의 기록 합산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매긴 단체전에서 바뀐 규정으로 한국 선수 중 가장 기록이 낮은 서창완은 아쉽게도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금메달이 유력했던 아시안게임 2관왕이자 대회 2회 연속 3연패를 노렸던 전용태는 스마(300점·10위)·수영(313점·1위)·펜싱 243점(3위)·레이저런(702점·2위) 등 총 1558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전용태는 전체 2위로 1위 이지훈(LH·경남)보다 10초 늦은 2위로 레이저런을 출발해 세 번째 사격 이전까지 선두를 달렸으나 사격에서 흔들리며 2회 연속 3연패를 아쉽게 놓쳤다.

서창완과 전용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나란히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서창완은 경기를 마친 후 "정말 힘들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좋고 또 아시안게임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내 조금 아쉬웠지만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게 돼 조금 아쉬운 게 떨쳤다"며 "아시안게임 때 펜싱과 스마 등 기술종목에서 조금 약점을 보여서 전국체전을 앞두고 집중 보완한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창완은 이제 내년 파리올림픽 메달을 향해 다시 힘차게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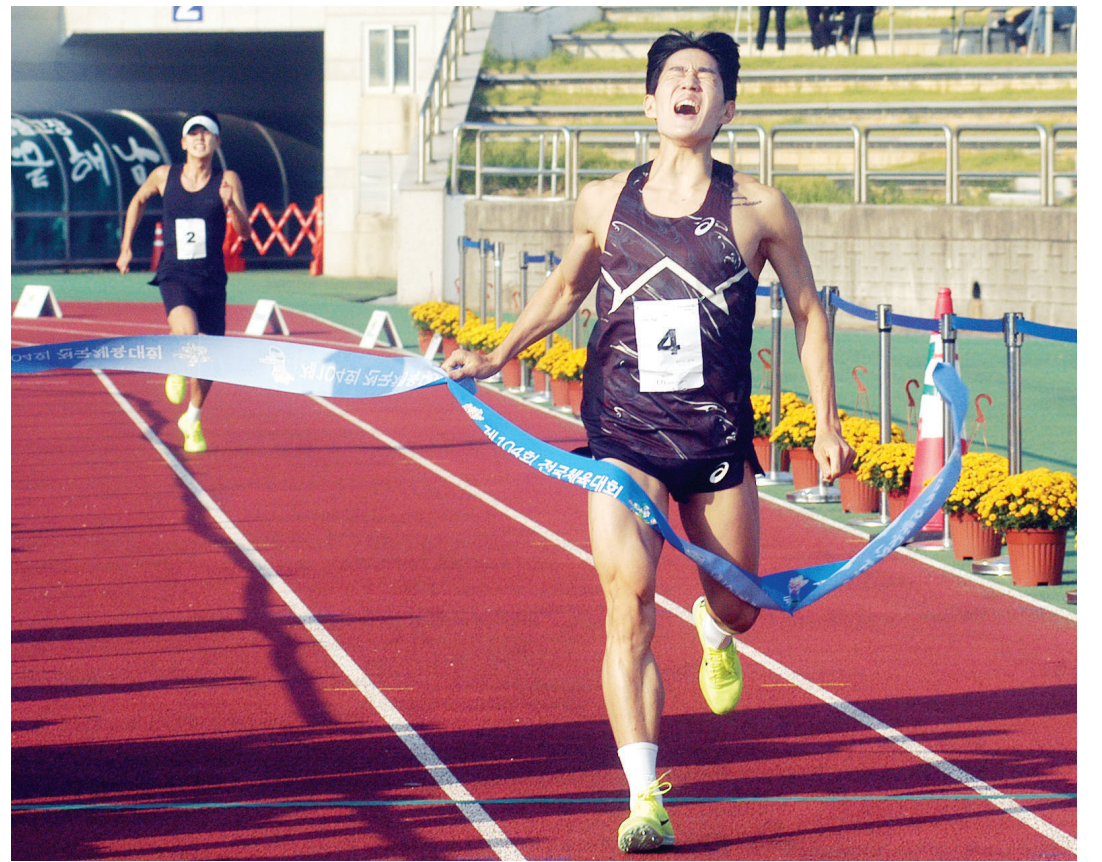
그는 "다음달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시상대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개인전을 아쉽게 은메달로 장식한 전용태는 국가대표 후배인 서창완의 금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는 "전국체전 3관왕을 목표 했는데 개인전 금메달을 놓쳐 아쉽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 기쁘다"며 "근대5종은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런 출발 전까지 상위 5명이 금메달을 다투기 때문에 끝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전에서는 전용태와 김영석이 팀을 이룬 광주가 총 3020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서창완과 박상구가 호흡을 맞춘 전남은 총 3017점으로 광주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용태는 "광주와 전남이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하나돼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근대5종에서 공교롭게 광주가 개인전 은메달·단체전 금메달을, 전남이 개인전 금메달·단체전 은메달을 각각 따내며 대회를 빛낸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서창완이 지난 14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포효하고 있다. 전용태(왼쪽)는 서창완의 뒤를 이어 2위로 끝이었다.



날아오른다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남자 육상 멀리뛰기에 참가한 김명하(광주시청)가 도약대를 뛰어오르고 있다. 김명하는 이날 7m 23을 기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국영(광주시청)이 15일 목포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100m 결승경기에서 1위로 들어온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자양궁 안산 금2·은1, 임시현 금2·은2

#### 여고부 남수현·조한이·박효빈 금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양궁에서 단체전 7연패를 합작한 안산(광주여대)과 임시현(한체대)이 제104회 전국체전 양궁 여자대학부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치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안산과 임시현은 지난 아시안게임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놓고 맞대결을 펼쳤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 임시현은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르며 수영 3관왕 김우민과 함께 대한민국 남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일주일 만에 전국체전 무대에서 다시 만난 안산과 임시현은 매 경기 박빙의 명승부를 펼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감동을 이어갔다.

지난 1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첫날 여대부 70m 릴리피케이션에서 나란히 사대에 선 안산과 임시현은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였다.

임시현이 341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안산은 333점으로 6위에 자리했다. 이어 열린 60m에서는 안산이 352점(대회 타이)으로 금메달을, 임시현은 349점으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15일 경기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는 명승부가 이어졌다.

50m에서 안산이 347점(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자, 30m에서 임시현이 359점을 쏘아 금메달로 우승했다. 안산은 30m에서 358점을 쏘아 은메달, 임시현은 50m에서 346점을 얻은

메달을 차지했다.

개인종합 1위 임시현(1396점)과 2위 안산(1390점)은 16일부터 올림픽라운드 치러지는 개인전 맞대결에 나선다. 두 선수가 승승장구해 결승전에서 만나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전에 이은 리턴매치가 성사된다.

한편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광주시청)는 여자일반부 60m에 출전, 350점을 쏘아 장민희(인천시청 351점), 전성은(현대백화점 351점)에 이어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개인종합 7위(1380점)도 올림픽라운드에서는 '엄마 공사' 기보배는 노련함을 앞세워 개인전 메달에 도전한다.

여고부에서도 광주·전남 공사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고부 70m에서는 남수현(순천여고)이 338점으로 금메달, 조한이(순천여고)가 334점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60m에서는 조한이가 348점으로 금메달을, 남지현(광주체고)이 345점을 쏘아 동메달을 따냈다.

또 50m에서는 박효빈(전남체고)과 남수현이 각각 341점을 쏘아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X10에서 15개를 기록한 박효빈이 금메달, X10 7개를 쏘는 남수현은 은메달을 가져갔다.

30m에서는 조수혜가 김보경(대전체고)과 357점, 동점을 기록했으나 X10에서 15개와 13개, 2개 차로 뒤져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전남 체육은 하나다”

###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상생발전 협력 강화하기로

15년 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시·전남도체육회가 스포츠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지난 14일 근대5종 경기가 열린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만나 양 사·도체육회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전남도체육회는 상생발전 일환으로 2024년부터 임직원 체육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종목 단체인 교류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 사·도체육회는 특히 부족한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상호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에 특화된 광주국제양궁장, 염주 스마장, 전남에 특화된 나주 사이클경기장, 나주사격장, 목포 하키장 등을 우선 활용, 상호 부족한 체육 시설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시체육회는 전남도체육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이번 전국체전이 역대 최고의 성공대회



전갑수(오른쪽) 광주시체육회장과 송진호(기운데) 전남도체육회장은 스포츠 상생발전을 위해 양 체육회가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장을 찾은 장재근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가 되길 기원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남 전국체전을 계기로 광주·전남 체육단체가 하나가 돼 지역 체육계 교민을 함께 해결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광주의 든든한 응원으로 전남 전국체전이 더 빛나는 것 같다"며 "세계 속의 전남체육 새로운 100년을 여는 안방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김국영 100m 금메달

#### 10초35...400m 계주 금 도전

한국 육상의 간판 스피린터 김국영(광주시청)이 4년 만에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남자 100m 왕좌를 되찾았다.

김국영은 1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100m 결선에서 10초3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박원진(10초40·속초시청)과 이준혁(10초43·안산시청)이 각각 2, 3위를 했다.

김국영은 이로써 100m 금메달을 포함해 2관왕에 올랐던 제100회 서울 대회 이후 4년 만에 이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제101회, 제102회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제대로 열리지 못한 가운데, 제103회 울산 대회 때는 김국영이 100m 결선에 출전하지 않고 200m(동)와 계주(400m 금·1,600m 은)에 집중했다.

김국영은 제96회 강원 대회부터 제98회 충북 대회까지 전국체전 남자 100m 3연패를 이뤘던 바 있다.

김국영은 이 종목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다.

이달 폐막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이정태(안양시청), 이재성(한국체대), 고승환(광주광역시청)과 함께 남자 400m 계주 동메달을 합작했다.

김국영의 생애 첫 아시안게임 메달이자 한국 육상이 이 종목에서 따낸 37년 만의 메달이었다.

한편, 김국영은 오는 11월 11일 멀리뛰기 국가대표 김규나(예천군청)와 백년기약을 맺는다.

김국영은 400m 계주와 1600m 계주에서 추가로 '결혼 예물' 확보에 나선다. /연합뉴스